

다산포럼



김순궁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장

1543년(중종 38년) 풍기군수였던 주세붕(1495-1554)이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시작이었다. 그 뒤 1550년(명종 5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1502-1571)의 요청에 의해 명종은 친필로 “이미 무너져버린 학문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既廢之學 紹而修之)”는 의미의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賜額)을 내리고 아울러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등의 서적과 노비도 하사했다. 학문의 도야와 후진 양성을 통해 지식 공동체를 만들도록 향촌사회를 교화하고 나아가 장래 정치를 이끌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지역 사립의 고두보를 확보했던 것이다. 사액을 받고 국가에서 공인한 사학(私學)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관학(官學)인 성균관(成均館)에 맞서는 이른바 ‘지방대’의 시작인 셈이다.

그런 지방 인재의 양성소이자 지식 권력의 중심이었던 지방대가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능능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시시즌이 시작됐는데, 올해 수시전형에서 199개 대학의 접수 결과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해 사실상 미달인 대학이 전국 102개 대학 중 지방대가 82곳(80.4%)인 반면 수도권은 20곳(19.6%)에 그쳤다.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 17.79대1, 지방대 5.49대1로 격차가 12.3대1까지 벌어진 것이다. 80%가 미달된 지방대의 학생 유치 결과는 전체 인원의 88%를 수시

지역의 붕괴와 지방대의 소멸

로 뽑는 신입생을 상상수 못 채울 것이 분명하다.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면 그 정도에 따라 학교의 폐과 혹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결국 대학의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대에서 문학, 사학, 철학, 수학, 물리학 등의 기초학문을 다루는 학과는 이미 사라지거나 명칭이 바뀌어 현재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 위주로 구조조정 되고 있지만 그것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의대·치대·한의대 등의 의료계를 정점으로 서울대부터 시작되는 수직적 위계질서의 맨 밑바닥에 지방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서 지방대는 결국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에서 5년간 총 1천억을 지원하자는 ‘글로벌대학’ 10개교를 지정하여 지방대를 살리기에 나섰지만 총 116개교에 달하는 지방대의 10%도 안 되는 숫자다. 더욱이 지원이 대부분 국립대학에 집중돼 있고 사립대는 한림대와 울산대뿐인데 지방대 중에 그나마 형편이 좋은 대학이다. 그러나 나머지 106개 지방대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해 서울에서 먼 “뱃꽃 피는 손으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자조적인 농담이 회자된다.

지방대의 생존은 재정 지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누가 자신의 일생이 걸린 대학에 합류하겠는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쉽게 가기 위해선 소위 ‘인 서울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충분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구가 서울로 가지 않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를 보더라도 5135만여 명의 50.7%인 2601만 여명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집중

화는 심각하다. 인구 집중보다 더 심각한 건 산업이나 경제의 집중이다. 단순히 부동산만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원 정도인데 5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광역시가 3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니 지방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

부의 편중으로 기업 본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직할 곳이 없다.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온갖 특혜를 제공한 경북 구미시를 뿌리치고 수도권인 용인을 선택한 것도 인력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도권에 이렇게 기업들이 모이니 누가 지방대로 가려고 하겠는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당의 주장처럼 김포나 하남시 등의 서울 편입으로 ‘메가 서울’을 만들 게 아니라 오히려 비대해진 서울의 기득권을 분산시켜 지역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지만 실행하는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다산(菑山) 조차도 두 아들에게 “중국의 문명이 풍속이 이루어 아무리 궁벽한 사골이나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거나 현인이 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으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서울 문밖으로 몇 십 리만 떨어져도 태곳적 원시사회가 된다”고 하여 ‘서울로부터 10리 안에서만 살도록’ 강조했을 정도였다. 그 시대는 ‘문화(文華)의 수혜’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가 걸린 것이니 어찌할 것인가? 무너져버린 지방대의 상아탑을 다시 세워 이어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

청춘 특특



김세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년

2022년 나는 드디어 성인이 됐다.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나는 더 큰 세계, 더 복잡한 사회로 발을 디디게 됐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후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바로 아르바이트였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땅 파면 돈 나오나 보라”는 말을 자주 들곤 했다. 그 만큼 돈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일은 멋있어 보였고 그 내막은 어떻게 궁금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를 경험하며 적잖게 힘든 시절을 보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는 것은 낯설었고, 누군가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몇 개월간은 계

첫 사회생활에서 얻은 것들

속 울었던 것 같다. 내가 했던 일 자체가 외워야 할 게 많고, 지켜야 할 규칙도 많았다. 이 때문인지 실수를 하면 밤새 자책으로 괴로워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 날 이후 나는 메모장에 외워야 할 것들을 정리하며 메모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저 아르바이트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니?”라는 말을 건네오곤 했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사회를 경험하게 될 때를 떠올려 이 또한 내가 책임감 있는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 같다.
우스워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 지난해 나를 가장 성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험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나에게 사회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알아먹지 않는 방법 등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나의 마음가짐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내가 겪었던 사회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모두 사회

초년생이다. 대학 입학 전처럼 학교나 가족 등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며, 입학 초년에는 수업 선택, 학업 계획, 대인관계 등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만의 독립성을 길러가는 과정이며, 대학에서도 우리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대학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 생활에 적응되지 않는다며 힘들어 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을 정도로 우리에게 ‘처음’이란 언제나 익숙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는 아르바이트,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사회 초년생의 생활을 경험할 것이다.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나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다. 처음에 하는 일이 낯설고 힘들더라도 그 성장통을 겪다 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다고. 처음은 언제나 어렵고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배움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회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고 믿는다.

기고



아라이 요시노리
화가

필자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아트 인 레지던스’를 통해 광주에 머물 기회를 얻었다. 광주를 몇 차례 방문했지만 장기간 머무는 것은 처음이었다. 레지던스는 광주 중심부에 가까운 계림동에 있었다. 예전에 일본인이 살았던, 무려 76년 된 가족에서 생활하며 작업을 하고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프로젝트는 흥미로웠다.
한여름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매일 매일 작업하는 과정은 즐거웠다. FM 라디오 방송에서 가아름과 거문고, 대금이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판소리를 들으며 어떤 작품을 만들지 구상하고 스케치했다. 전시 공간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배열할지 상상해 보는 나날이 이어졌다.
내가 머문 계림동은 다양한 가게와 시장, 주택가가 어우러진 한적한 공간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네였다. 한약제조업, 창틀과 목재 등을 판매하는

광주는 온화하고 다정하다

건설자재점, 스크린경마장, 게임센터 등이 모여 있고 큰 거리의 양쪽에는 골목풍 가게, 한국전통의 나전칠기점도 남아 있었다. 인근 시장에는 야채, 생선, 고기 등을 파는 식재료점을 비롯해 시민생활에 빠뜨릴 수 없는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어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곳의 주민으로 살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들었다.
계림동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었다. 주변에는 고층아파트가 오래된 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빨래방, 유치원, 편의점과 대형마트, 빵집, 유기농 식자재나 채소가게도 있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동명동을 찾았을 때는 한국의 오래된 주거 공간인 한옥이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 레스토랑과 조화를 이뤄 새롭고 활기찬 모습을 선사하고 있었다.
때때로 산책하며 들렀던 카페에서 마신 생강 라떼는 기분 전환이 되고, 음식점에서는 특징이 있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등의 반찬을 아낌없이 내 주었다. 특히 어린시절 먹었던 그리운 된장찌개는 언제나 맛있었다. 또한 거리의 은행나무와 메타세콰이어의 가로수는 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한편으로는 계림동의 쓸쓸한 모습도 느껴졌다. 도로에서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서면 한옥의 지붕만이 남아 있는 폐옥과 잔디 투성이의 공지가 눈에 보였다.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즐비하였지만 도시계획이 진행중인 계림지구에는 그들과 같은 존재로 도시의 양극화를 보여

주는 것처럼 생각됐다.
머지않아 대부분의 현대 도시처럼 개발과 리노베이션의 파도에 의해 지금까지의 경관은 크게 바뀌고 생활 모습도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갈 것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밟고 있다.
도시 개발로부터 생성된 고층 아파트나 새로운 점포가 생겨나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지닌 역사관이나 기억을 품고 있을 자연이나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온화한 경관을 소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갈 여행자의 센터멘탈한 생각일까? 사람들의 DNA는 사진으로의 추억만이 아닌, 땅에 직접 발을 딛고 선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다 고 거리를 걸으며 늘 생각했다.
아트 인 레지던스에 참여한 결과물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 ‘선·선·선의 기억과 행방’이라는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광주에서 구입한 한지와 먹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작품전을 통해 결실을 이루었다.
광주에서 생활하고, 작품을 제작하고, 거리를 걷고, 대지에 서서 공기를 마시던 일이 꿈만 같다. 그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온화하고 다정한 마음을 받았다. 레지던스 4개월 동안, 어디에 있어도 사람과 사람은 대화나 작품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광주에서의 따뜻한 환대를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이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社說

‘절반의 성공’ 달빛철도 연내 마무리 짓자

영·호남 속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의 일정을 남겨 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선·고속철도 대신 단선·일반철도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 명칭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당초 요구해 온 고속철도 신설을 일반철도로 양보한 것은 주행시간이 2분여 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비용을 이유로 복선을 단선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도 야당 측에서 양보한 내용이다.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한 것은 정부와 여당 측이 한 발 물러나

서 가능했다.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광주시와 대구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끈질기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기획재정은 달빛철도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SOC 사업에 예타 면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도 막판에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만큼 이제 남은 국회 일정에 집중해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달빛철도는 첫 논의가 시작된 1999년 이래 24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

한·일 정부 강제동원 판결 의미 되새겨야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옛그제 양영수, 심선애, 김재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과 자연 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네 명 가운데 1944년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고인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까지 무려 9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전범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8년 대법원이 최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정권 협력(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과 자연 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네 명 가운데 1944년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고인이 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까지 무려 9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전범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無等鼓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밤새 소담스런 눈이 내렸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예수 탄생의 성지’인 요르단 강 서안도시 베들레헤에서 70km 가량 떨어진 가자지구에서 포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군이 2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7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절 전야에 미사를 집전하며 “오늘날에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따뜻한 열음 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종식을 호소했다.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시의 한 카페 주인은 포탄 탄피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세워 올렸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임을 알리기 위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알려졌다. 독일 뮌헨으로 피란을 떠난 우크라이나 일곱 살 소년은 산타클로스의 유래로 여겨지는 ‘성 니콜라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평화, 건강, 꽃이 만발한 우크라이나”를 소원으로 밝혔다.

국내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발 속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70대 입욕객 세 명이 목욕탕에서 갑작사망으로 세상을 떠났고, 눈썰매장 보행통로 지붕이 인공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세 명이 다쳤다. 아이없는 후진국형 사고다.
광주시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는 ‘사랑의 행복 온도탑’이 세워져 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50억 7000만원. 지난 1일 제막한 온도탑 수은주는 현재 30도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맘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 종식이 절실하다. 강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온정도 아쉽다. 아기 예수가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언제쯤 지구촌에 정착될 수 있을까. 박남준 시인의 시 ‘따뜻한 열음’ 한 구절을 읽어본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대로 걸릴 만한 것은/ 제 몸의 온기만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열음이 있기 때문이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